

# 도시와 행복\*

오충연\*\*

- I. 머리말
- II. 세계 지역별 도시의 제반지표와 행복지수
- III.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지표들
- IV. 한국의 도시는 왜 불행한가?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세계 도시들의 행복지수와 상관성을 보이는 지표들을 고찰하고, 한국의 도시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높은 행복지수와 관련된 것은 근교의 대자연,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와 적은 규모, 사회적 지원, 이웃과의 소통체계 등이었고, 현대화의 정도나 도시 안의 공원조성 등은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도시의 주민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였다. 이와 상관성을 보이는 주요한 지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 높은 자살률 및 우울증 발병률, 건설 중심의 나쁜 환경, 낮은 사회적 지원 등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

---

\* 이 글은 인문학 지원 사업(ACE)의 일환으로, 필자가 강의하였던 내용에 자료를 보충하여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전공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 주로 필자가 여행하거나 거주함으로써 직접 경험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 주민들의 삶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하였으며, 다소 주관적인 비평을 포함하고 있다.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적 요인으로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에,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 중심의 배타적인 인간관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핵심어** : 도시, 행복, 인구밀도, 환경, 가족

## I. 머리말

현대적인 삶의 특성인 기계화·자동화, 분업화, 복잡성, 편리성 등은 모두 도시화와 관련된다. 현대적인 삶을 지원해 주는 체계도 이러한 도시에서 발달하였으므로, 대중은 현대화를 도시화와 무의식적으로 동일화한다. 사람들은 현대적인 삶이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도시의 삶을 통해 양질의 삶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현대적인 삶에 대한 기대는 많은 인구를 도시로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 기관들의 조사 결과는, 도시화의 정도와 행복감이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물론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도시민 다수의 평균적인 삶이 행복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난 70년대부터 40여 년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빈국으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맥락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함께 겪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경제·산업의 지표에 걸맞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World Happiness Report(이하 WHR)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기간에 조사된 바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8개 국가 중 47위이었다.<sup>1)</sup> 이는, 해당 기간인 2013

---

1)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ed,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The Earth

년에 PLOS ONE이<sup>2)</sup> 발행한 바에 의하면, 36개 OECD 회원국 중에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26위의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과 맞물린다. 최상위인 스위스를 10점으로 설정하고 최하위의 헝가리를 0점으로 놓았을 때, 4점이 겨우 넘는 점수이다. 또한 2015년 WIN/Gallup이 6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감은 54위로 최하위 권역에 속한다.<sup>3)</sup> 국내 기관의 조사에서도, 서울복지재단이 2007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스톡홀름, 토론토,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도쿄, 베이징 등 10개 도시 중에 서울시가 최하위인 10위를 차지했었다.<sup>4)</sup> 당시의 1위인 스톡홀름의 점수가 80.08일 때, 서울의 점수는 63.64이었으며, 이는 67.76을 얻은 베이징보다도 4점이나 낮은 것이었다. 이후에 서울시가 공개한 '시민행복지수'는 2016년 기준으로 6.97점으로 평가되어 있다.<sup>5)</sup>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살률은, WHO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발표한 결과로는 인구 10만 명당 28.3 명으로 조사 대상인 183개 국가 중 10위에 해당하며, 이는 OECD 최악의 자살률이기도 하다.

본고는 세계 주요 도시의 거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하여 수치화한 행복지수와 도시 환경과의 상관성을 고찰한 것이다.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룬 도시는, 대부분 필자가 여행하거나 거주했던 경험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도시공학이나 환경공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거니와, 필자의 전공 영역도 아니다. 다만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의식구조가 관련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지표들을 수집하였다. 지표의 검토 결과, 현대적이며 미적인 건축물과 도시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의 행복감이 높

---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etc.

2) 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2006년부터 간행되는 저널. 인터넷 주소 [journals.plos.org/plosone](http://journals.plos.org/plosone).

3) WIN/Gallup International, 2016. *WIN/Gallup International's Annual global End of Year survey reveals a world of conflicting hopes, happiness and despair.*

4) 김경동(책임연구원), 2007.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5) [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26](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26)

았다. 특히 천연의 대규모 자연환경이 근교에 있는 도시가, 도심이나 근교에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도시보다 행복지수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사회적 환경이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진행된 경제·산업 및 국토 개발과 맞물려서 한국 도시인의 삶에 대한 행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가족 중심의 배타적이고 단단한 결속은, 불안정한 사회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무책임, 소득 분배의 실패 및 대기업에의 지나친 자본 집중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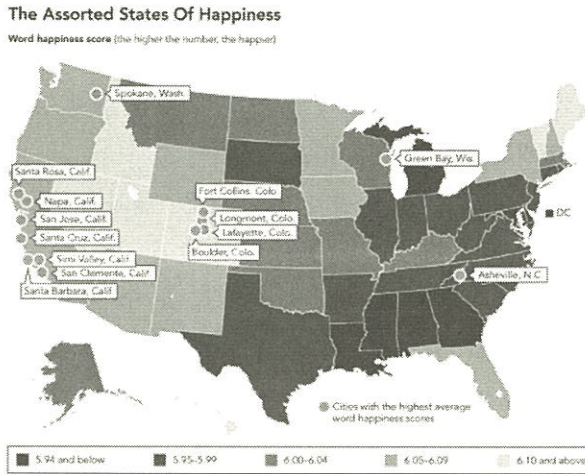
## II. 세계 지역별 도시의 제반 지표와 행복지수

### 2.1. 북 미

2013년 OECD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 지수(Life satisfaction index)는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7.5에 해당한다. 이는 조사된 35개 회원국 중에 14위에 해당한다.<sup>6)</sup> 주별 행복지수를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은 서부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행복도가 높다는 것이다. 유타주와 콜로라도주, 와이오밍주 등의 자연 경관 및 환경이 좋은 지역은 물론 지역 대부분이 사막인 네바다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다양한 자연 환경이 응축된 지역이므로, 캘리포니아의 도시별 행복 지수를 검토하면 자연환경과 행복지수와의 상관성에 대해 보다 응축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6)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그림 1〉 미국 주별 행복도 지도(출처: HUFFINGTON POST)<sup>7)</sup>

2013년 작성된 〈그림 1〉을 통해 볼 때,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들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에 집중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로는 산타로사, 나파, 산호세, 산타크루즈, 산타바바라, 시미밸리 등을 꼽을 수 있고, 콜로라도 주의 도시로는 포트콜린스, 롱몬트, 라파예트, 볼더가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이다.

이들 도시들의 공통점은 국립공원 등의 접근하기 쉬운 대규모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다는 점과, 도시의 규모가 중간급이거나 작다는 것이었으며,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경험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오후 3시쯤이면 퇴근으로 주요 도로가 붐빈다. 하루의 일과 중 오후 시간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각종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여가 시간을 한국과 비교할 때 양적이고도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LA,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는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이중에 가장

7) [https://www.huffingtonpost.com/2013/08/02/happiest-states-\\_n\\_3696160.html](https://www.huffingtonpost.com/2013/08/02/happiest-states-_n_3696160.html) (Katy Hall and Jan Diehm의 기사를 인용함.)

현대적인 도시 건축 등 도시화 지수가 높은 일리노이의 시카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통이나 건축물, 대규모 소통 시설 등 도시 현대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곳일수록,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 규모가 클수록 행복지수는 반비례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다. 2014-2016년 캐나다의 행복지수 순위는 155개국 중 7위이다.<sup>8)</sup> 이는 이웃 국가인 미국이 14위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캐나다의 자연사·역사박물관들을 답사한 경험으로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면서 부터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역사를 그들의 대륙에 아시아의 종족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때부터로 교육하고 있었다. 즉 캐나다인의 역사는 인디언의 역사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학습은 캐나다에서 인종적 차별을 훨씬 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sup>9)</sup>

앞서 언급한 2007년 서울복지재단에서의 조사에서 토론토는 조사대상 10개 도시 중에 스톡홀름에 이어서 2위에 순위가 매겨져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 통계기관인 Statics Canada report(이하 SC)에서<sup>10)</sup>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캐나다 내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은 도시는 밴쿠버이며 토론토가 그 뒤를 잇는다. 서울시의 발표가 무색하게도 토론토는 밴쿠버와 더불어 캐나다에서 가장 불행한 도시(the unhappiest city)였다. 더불어 생활표준연구 캐나다 센터(이하 CSL)의<sup>11)</sup> 조사 결과로는, 전국 행복도 조사를 토대로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슬픈 곳(the saddest place)가

8)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World Happiness Index*,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7/>

9) 필자가 처음 토론토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는 중동인이었다. 그는 캐나다자 자신에게 일자리를 얻게 해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었다면서, 캐나다를 사랑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LA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마침 한인 택시 기사였는데 한국인들은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팁을 주지 않는다면서 내릴 때 팁을 준비하라는 당부를 했다.

10) <https://www.statcan.gc.ca/>

11) 2010년 11월 25일자 Toronto Life의 기사 참조.

되었다. SC의 조사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퀘벡주의 사그네(Saguenay)였다.<sup>12)</sup> 사그네는 면적 1,280km<sup>2</sup>에 인구 14만 6천8백여 명[2014년]의 크지 않은 도시로 km<sup>2</sup>당 인구밀도는 114명이다. 인구밀도로 보면, 밴쿠버의 5630명에 비해 1/50 수준이다.<sup>13)</sup> 토론토 인구는 280만 9천여 명이며 면적630km<sup>2</sup>로 인구밀도가 km<sup>2</sup>당 4459명이다. 밴쿠버와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변화한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하면 비교적 덜 밀집되어 있다. 다만 캐나다 내에서는 인구밀도와 행복도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밴쿠버나 토론토가 캐나다 내에서는 낮은 행복도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하며, 주민들은 친절했다.

## 2.2. 아시아

2017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행복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질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2017년 세계 행복 보고서(WHR)의 155개 국가별 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행복도를 26위로 평가하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4위가 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는 2012년 11월 21일 기사에서, 갤럽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메마른 나라라고 꼬집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싱가포르가 높은 소득과 낮은 실업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등의 기준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과도한 노동과 직업 만족도를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2015년에 10-19세 청소년 중에 27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2014년 13명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발표했다.<sup>14)</sup> 싱가포르의 자살률은 상당히

12) 사그네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도시가 아니다.

13) 밴쿠버는 인구 64만 7천5백 명이며, 면적은 115km<sup>2</sup>이다.

14) 싱가포르 straits times 보도

높은 편이다. 2005년과 2006년에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넘었으며, 이후 다소 줄어들다가 2012년 절정에 이르렀다. 201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8.13명에서 2012년에는 10.27명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sup>15)</sup> 이 당시의 주요 증가 연령은 20대였다. 후술할 바이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싱가포르의 세배에 육박한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도시들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sup>16)</sup> 과도한 노동시간과 청소년에게 가중되는 직업 및 미래에 대한 압박 등에서 그러하다.

세계적인 대도시의 행복지수가 낮은 현상은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更多新聞은 칭화대학교 과학기술실험실의 조사가 실시한 결과,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정 등의 다른 대도시와 더불어 중국내 도시 중에 행복지수가 100위 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스촨성 남부의 루저우 시가 1위인 것과 대비된다.

2017년 WHR에서 말레이시아는 155개국 중 4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개 순위를 뛰어 오른 것이다. 행복지수지표(Happy Planet Index)의<sup>17)</sup> 평가체계에서 말레이시아는 46위이다. 필자가 경험한 말레이시아의 눈여겨 볼 도시로는 쿠칭(Kuching)을 들 수 있다. 쿠칭은 세계인이 찾는 말레이시아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보르네오 섬의 사라왁 주의 주도이기도 하다. 인구밀도는 km<sup>2</sup> 당 1527명이며, 보르네오 특유의 자연환경을 염두에 들 만하다. 쿠칭은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었다. 이 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여행객들에게 친절하였으며, 상인과 택시기사 등 관광업과 관련된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정직하였다. 이 도시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값이나 택시 요금의 과도한 청구 등의 문제를 겪지 않았다. 중등학교까지의 교육 내용이 충실하여 시민의 평균 의식이 높은 편으로 생각되었다. 이곳 사

15) 출처, 〈National Suicide Statics〉, Samaritans of Singapore. <https://sos.org.sg>

16)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2012년은 한국에서도 자살률이 최고에 달했던 해이다.

17) 이 체계로는, 생활기대(life expectancy)가 74.4/100, 웰빙은 5.9/10으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는 3.7/10으로<sup>1)</sup>, 그 외 정량적 조사로 10%이었다. Happy Planet Index의 자료는 〈<http://happyplanetindex.org/>〉를 참고했다.



람들은 사라왁의 언어를 사용하였으나 영어 교육이 질적으로도 잘 보급되어 주민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 2.3. 유럽

북유럽은 행복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북유럽의 국가들과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높게 평가된다. 2013-2015년 세계 행복보고서는 행복지수가 높은 10개국을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순으로 발표했다. 이 중에 7개국이 북유럽 국가에 해당한다. 이들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사회적 지원'과 '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코펜하겐, 스톡홀름 등의 북유럽 지역을 세계 최고의 행복 도시로 꼽는다.

반면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남부 유럽의 도시들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다. 로마나 파리는 역사적인 자원에도 불구하고,<sup>18)</sup>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파리의 경우,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우울증 발병율과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프랑스의 파리와 같이 개방적이고 다인종적인 국가나 도시의 행복지수가 LA와 마찬가지로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인종적 다양성이 오히려 인종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평등이나 인권 등의 순수한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sup>19)</sup>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농촌의 결혼 이주나 기업이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의 인력을 수입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외국 노동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고자 함이 다문화 정책이다. 그러나 그 유입의 원인이 저임금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18) 역사적 유물이나 관광 자원이 많은 것은 행복지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토의 경우 역사적 배경이 이 도시 주민들의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9) 이는 물론 다문화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을 두고 한 평가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측면을 말한다.

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목적 자체가 기업의 생산성을 위한 것이며, 이는 원청업체의 다단계적 이익과 결부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은 외국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사회적 불평등으로 악순환한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악과 악의 사이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임금의 불평등을 전제로 시작된 다문화 문제는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근원적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내국인 고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

#### 2.4. 행복지수의 근원 요소들

행복지수를 계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으나, 필자가 앞에서의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측면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틀어 볼 때, 행복감 또는 행복지수를 좌우하는 근간이 되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물리적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문화적 환경이다. 물론 행복 자체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 물리적 환경으로 분류된 것이라도 궁극적으로 정신·문화적 환경의 배경이 되지만, 편의상 두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환경은 곧 자연환경이다. 행복지수와 상관성이 있는 자연환경은 도심의 인공적 공원이 아니라, 근교의 대자연이었다. 뉴욕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 도시 녹화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인구 밀집도를 상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여가에 대자연을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에서 행복지수가 높았다. 특히 사막, 산악, 혹은 바다 등의 지형의 종류보다는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 환경을 위한 지나친 도로율과 광(光)공해는 오히려 행복감을 낮춘다. 자연환경은 인구밀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은 또 다시 인구밀집 현상을 가중시켜서 더욱더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문화적 환경은 공공윤리와 맞물려 있다. 공공윤리는 전통적인 의식문화, 교육, 사회체제와 관련이 있다. 개인을 중시하느냐, 혹은 사회 전체를 중

시하느냐의 의식은 나라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두 항목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행복감이 높다. 파리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사상을 가장 중시하는 도시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파리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대중적이고 공공적인 가치가, 단지 사회질서 유지의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오스트리아나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화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극히 꺼려하며,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다. 오스트리아나 일본에서는, 길을 걸다가 반대쪽에서 다른 사람이 마주올 경우에 멀리서부터 피해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록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패전국이기는 하나, 이들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 문화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지는 필자로서도 정확히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빈이나 일본의 교토 등은 여행자로서는 가장 여행하기 편한 도시들이기도 하다. 적어도 현지 사람들로 인해 부대끼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된 바로는 오스트리아의 행복지수는 꽤 높은 편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표면적으로 남을 지극히 배려하는 이들 도시의 행복지수는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이는 곳은 미국의 중소 규모의 도시들이다. 미국은 자유를 이념화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공중윤리나 국가관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바바라 주는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다. 산타바바라 주에 속해 있다가 분리된 벤투라 카운티에<sup>20)</sup> 있는 소도시 카마리오의 경우, 주민 소득이 캘리포니아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소로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공공기관 근무자, 즉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용한다. 부당하게 여겨질 경우에 비록 나중에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당장의 집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거리의 교통질서나, 식당에서

20) 벤투라(Ventura) 카운티에는 한국전쟁 기념 고속도로가 있다.

의 줄서기 등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혐오한다. 상대방이 실수를 할 경우에도 쉽게 지적하되 공격적이지는 않다. 지적 받는 사람은 지적을 수용하거나 사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공질서를 어기는 일에 대해 지적 또는 항의를 자연스럽게 하는 반면에, 이웃 간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들은 비교적 친밀한 이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둔다.

자연환경과 정신·문화적 환경이 한국인, 특히 서울 사람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Ⅲ.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지표들

2016년 세계갤럽 조사에 의하면,<sup>21)</sup> 응답자 자신에게 있어서 2017년의 삶이 당시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1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5%,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2%이다(Gallup International 2016). 한국은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보다 네 배가량이나 많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전체(66개국)를 대상으로 했을 때, '좋아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비슷할 것이다' -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의 평균이 각각 41%-22%-30%-7%임에 비해서 현저히 부정적인 결과이다. 조사 대상인 66개국 중에 알바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등과 더불어 공동 54위에 해당했다. 바로 아래는 58위로 내전중인 아프가니스탄이며, 바로 위는 52위로 역시 얼마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경제상황이 2016년에 비교했을 때, 2017년에 더 번성할 것인가-어려워질 것인가- 비슷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 각각 4%(세계 29%)-66%(세계

21) WIN/GALLUP International. <http://www.wingia.com/>

31%)-28%(세계 33%)를 차지하여, 경제 상황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sup>22)</sup>

위와 같은 결과는 그 전년도인 2015년에 2016에 대한 낙관성이 G-20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희망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당시의 조사에서는 낙관 21%, 비관 25%, 중립 54%였으며, 이는 8위 아르헨티나와 10위 터키의 중간이었다.

행복감에 관해서는, 보통 때 행복을 느끼느냐는 설문에, '매우 행복하다'가 3%, '행복하다'가 46%,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가 42%, '불행하다'가 9%이며, '매우 불행하다'는 총 1,500명 중 6명만이 응답했다. 세계 전체 조사 대상으로 볼 때, 각각 14%, 48%, 27%, 8%, 3%와 비교해 볼 때, 긍정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계 전체로 볼 때 행복 또는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임에 비해 한국은 49%였다. 그리고 세계 전체로 볼 때 불행, 또는 매우 불행하다고 응답한 부정율은 10%임에 비해 9%로 비슷했다. 이와 같은 행복감 조사 결과는 2015년 12월에 실시된 것과 비교했을 때, 긍정율이 올라간 것이다. 2015 조사 결과는 긍정율 57%, 부정율 9%, 중립 35%였다. (이상 WIN/GALLUP International 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함.)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세부 지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2016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발표에 의하면, 한국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였다.<sup>23)</sup>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자살 위험집단은 전체 학생의 5%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2016년 발행된 OECD family data base의 〈factbook〉에 의하면, 2010-2013년 기간 동안 한국의 자살률은 36개 회원국중 인구 10만 명당 28명으로 1위였으며, 이는 2위인 러시아(23명)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가디언〉紙가 메마르고 우울한 도시로 꼽은 싱가포르와 비교해서도 3배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는 그 주요한 원인을 청소년 자살로 보았다. 뿐만

22) <http://www.wingia.com/>

23) 염유식, 2016.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아니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OECD 최하위였으며, 출산율도 OECD 최하위였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도 OECD 최하위였으며, 복지예산도 OECD 최하위이며, 평균 통근시간은 세계 1위였다. 서울의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은 전세계 조사대상국 중에 최고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지표들은 한국인의 삶의 질이 ‘암담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한국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국민의 정신적인 삶은 꺾여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인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자.

## IV. 한국의 도시는 왜 불행한가?

### 4.1. 구조적 악순환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다.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에<sup>24)</sup> 의하면 38개 회원국에 대비하여 한국인의 삶의 주요한 강점 두 가지는 높은 주택구매력(2위)과 학생들의 능력(Student skills, 1위)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한 약점 세 가지는 대기 오염(38위),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38위), 사회적 지원의 질(37위)의 순이다.

이들 다섯 가지의 주요 강점과 약점들은 각각 별개의 항목처럼 보이지만,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그 기저에는 한국인의 가치 체계와 경제중심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소비를 악으로, 저축을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축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한다. 이는 경제력에 비해 주택구매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된 이유이다. 한국인이 저축과 주택구매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를 영속적인 것으로

---

24) OECD 자료 : 출처 [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곧 상속을 의미한다. 즉 상속을 통해 생애 너머의 기간으로 연장될 만큼 부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富란 소비 생활을 통한 삶의 영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연속인 자손을 보존해줄 수단이다. 이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삶에 대한 불안한 정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자신의 부와 가문의 가치를 세습하려는 문화의 결합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부의 영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로 이어진다. 자녀에 대한 지원, 특히 학교 교과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덕택에 한국의 청소년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열은 취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에서의 학술적 성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열의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의사라기보다는 사회구조와 부모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의사라 하더라도, 사회와 부모 세대로부터 학습된 미래 생활의 불안정성과 그것이 원인이 된 교육 욕구인 경우가 많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청소년 우울증이나 범죄, 자살이라는 모순적인 양면성이 성립되는 원인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고, 사회적 지원이 약한 한국 사회에서 위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가족 결속력은 배타적인 측면이 있다. 이웃 등,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낮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의 부모 세대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세계적으로 높다. 한국의 자녀들은 제사의 형식으로 사망한 부모를 죽을 때까지 모시기도 한다. 높은 가족 결속력은 아시아권의 특성이기는 하나, 한국은 전통적인 효의 사상으로 더욱 강화된 형태이다.

그러나 자녀의 현대적인 삶과 가치관, 세대간의 의식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에 의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실패할 때, 노인문제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국가나 사회에서도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자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흔히 명절에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지방의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유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윤리적 상황이 묘사되곤 한다. 이러한 드라마에는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둔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감추어져 있다. 한국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특히 노인에 대한 복지는 초보적인 수준이며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세계적인 노인 자살률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경제적 빈곤, 정서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의 부재, 노인 건강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부자들은 재산의 영속성이 자녀 세대에게 부를 세습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업문화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의 대기업의 경영 후계자는 대부분 창업주의 자손이다. 대기업 경영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부의 분배에 대한 통찰보다는, 부의 무한한 축적과 축적된 부의 세습을 통한 영속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불균형한 소득의 분배나 사회적 부조리 등의 문제만을 함의할 뿐만 아니라, 부에 대한 강박적 성취욕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건전한 여가와 소비 생활을 누릴 여지를 저해하기도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을 통틀어 한국인의 시간당 임금은 경제규모와 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비롯된 부를 이룬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인간 간의 신뢰도 저하를 함께 불러일으킨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삶은 즐거움의 과정이 아니라, 성취의 과정이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학교 공부나, 직장에서의 노동에 자의·타의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의 여가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지 않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태도에서도 배어 있다. 몇 해 전,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수십 명의 사망 사건에서, 이를 바로 잡는 데에 신속하지 않았거나, 식품의 안전 문제를 발표했다가 관련 사업 단체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철회하는 등의 현상이 그러하다. 그



원인은 기업과 국민경제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과 맞물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인이 가족중심의 결속력을 강화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지난 수십 년의 산업화를 겪으면서 경제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로 인한 산업 중심주의의 폐해는 결정적으로 환경의 파괴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대기 오염은 산업화된 도시인 서울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다. 이는 2차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의 부재는 거의 전국민에게 해당한다. 예를 들어, 농촌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가축 사육의 제약이 느슨한 결과로, 가축의 분뇨 냄새가 온 동네를 덮은 지역을 흔하게 마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혹은 비고의적인 분뇨 방출로 전국의 하천이 오염되어 있다. 이는 우천시에 더욱 심화되어, 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강우 후에 오히려 물고기의 폐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지난 2017년 8월의 집중 강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녹조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대중의 낮은 수준의 공공 윤리가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도로율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의 도로 공사를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에 산악지대가 많은 것은, 심리적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러나 교통의 효율만을 생각하여 넓은 폭의 도로를 직선으로 건설하는 것은 자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공간을 좁혀주어 심리적 인구밀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큰 규모의 고속도로는 한정적으로 건설하고 지형에 따라 구불구불한 옛 도로를 여전히 보수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다. 한국의 도로 건설 사업은 이제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산과 산 사이, 계곡 위를 공중으로 통과하는 고속도로들과, 어느 곳에서든 시야를 피해 갈 수 없는 고압 송전탑, 정비되지 않은 읍면의 주거 환경 등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함을 물론,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국인의 강점과 약점 다섯 가지를 두고 볼 때,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자살률, 우울증 발병률 등은 주거 환경 및 의식구조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주택 구매 능력, 청소년의 학업능력, 낮은 사회적 지원, 최악의 대기오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 등은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강점으로 지목된 높은 구매율과 청소년의 학습능력도 결과적으로 악순환적 지표들이다.

#### 4.2. 낮은 신뢰도

필자가 경험한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활동이나 소모임 활동 등 개인을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이웃에게 스스로없이 말 걸기와 축하 등의 긍정적인 간섭을 하는 대신,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지킨다.

그에 비해서, 한국인은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하며 부정적인 간섭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며, 이 때문에 재산가들은 사람들을 경계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한국의 도시인에게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sup>25)</sup> 범죄에 대한 심리적 공포도 높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도 높다. 인터넷 매체에서 보이는 일반인들의 댓글들은 높은 불안도와 공격성을 보여준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권력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권위를 발휘한다. 또한 상급기관에서는 공무원들 비롯해 공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을 옹호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다. 한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선 행정 기관의 공무원의 권한에 의해 처리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일이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25) 매일경제 2017년 2월 9일 기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미나를 인용하여, 한국인의 타인 신뢰도가 OECD 국가중 23위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27.1%가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korean027.asp>).

법규가 지나치게 세밀하고 공무원의 권한은 축소되어 있다. 행정적 처리를 하거나 처벌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 포괄적인 법규에 대하여 법집행자의 해석과 처리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규는 피해자나 선의를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sup>26)</sup>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negative) 법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적 배경에 의해 ‘츄츄하게’ 짜인 법규는<sup>27)</sup> 일상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범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해당 범법 행위를 한 자를 모두 가려내어 처벌하기 어려워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 소지가 많다.<sup>28)</sup>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중범에 대한 처벌도, 대중의 의식에 비할 때 처벌 수준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불신이 낳은 세세한 법규와 중범에 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은 또 다른 불신과 불만을 낳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세한 법규와 행정의 과도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은 대단히 미약하다. 또한 이를 보완할 기부나 자선봉사 등의 사회봉사활동의 수준도 미약하다. 이러한 속에서 전통적인 한국인의 가족 결속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여, 가족 의존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 세계적인 의료보험 체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 내에 중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중 일부 또는 전체가 환자를 돌보느라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현상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 사회는 개인생활에 대해 사회적·법제적 간섭이 많은 편인 반면에 지원은 약하다.

26) 한국에서 정당방어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27) 2016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 구성원의 낮은 신뢰도가 그 탄생의 배경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와 범법인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모든 위반자에게 공평하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그 위헌적 소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으로서 찬성하고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불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28)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행위를 합법으로 간주하고 몇몇 행위를 범법으로 간주하여 처벌 규정을 정한 것을 긍정적 법제정이라 한다면, 즉 명시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범법으로 전제하고 성문화 된 것만을 합법으로 간주하는 것을 부정적인 법제정의 접근법이다.

## V. 맺음말

여러 기관들의 지표는 한국의 도시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준다. 앞서의 고찰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를 한국 도시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에 무한히 집중되는 자본을 분산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생산시간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족한 여가시간을 늘리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환경파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악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장들과 발전소, 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해야 한다. 또한 인구집중을 가중시키는 아파트 단지 건설과 각종 도로의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도심의 녹지라는 소극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국가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토 전체를 보전하도록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과 노인 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빈곤과 건강의 문제, 우울증과 자살률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의탁하고 이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사회적 지원은 열악하다. 특히 농촌보다 도시 지역에서 이웃의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전 세대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행복한 도시의 필수적인 두 요소는 자연 환경과 적정 소득이 주는 여가이다. 행복한 도시는 자연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 환경의 파괴와 도시 인구 과밀화로 이어졌다. 이것이 배타적인 가족 이기주의

와 맞물려서 한국은 과도한 경쟁사회가 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세습화나 합리적인 소득체계 구현의 실패와 맞물린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한국의 도시민을 강박적인 삶으로 유도한다. 이를 통합적으로 꿰뚫는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ed., World Happiness Report 2017.
- OECD, Better Life initiative, *OECD Better Life Index Country Reports*,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about/better-life-initiative/>.
- OECD, OECD Factbook, OECD, 2016.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5-2016\\_\\_factbook-2015-en](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5-2016__factbook-2015-en).
-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ONE*, 2013. <http://journals.plos.org/plosone/>.
- Rees, William E., "Ecological footprints and appropriated carrying capacity: what urban economics leaves out". *Environment and Urbanisation*, 4 (2): 121-130, 1992.
- Wackernagel, Mathis, Ecological Footprint and Appropriated Carrying Capacity: A Tool for Planning Toward Sustainability, Doctorial thesis, The Univ. of British Columbia, 1994.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7/>.
-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suicideprevent/en/](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suicideprevent/en/).
- 김경동(책임연구원),〈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2007.
- 염유식,〈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016.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

\* 기타 인터넷에서 수집한 일간신문의 기사 자료 등은 본문 또는 각주로 대신함.

〈Abstract〉

## City and Happiness

Oh, Choong Yeun

The happiness index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cities of Korea was reported very low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Several happiness indexes -suicide rate, depression, social support, air pollution, etc- were the bottom of the world. Low happiness indexes seems to be relat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high population density and the lack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nature. It is strengthened by the government policy of mainly economic growth. Korean devote time and money to possess real estate, partly due to the belief that properties can be perpetuated by inheritance to their children. Korean culture emphasizing family bond can be another factor contributing to low happiness. The strong attachment to the family is also related to the relative weak ties with groups outside of the family. The expectation what about strong support from the family is make government to neglect to making the system of social support.

**Key Words** : City, Happiness, Population density, Environment, Family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